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3월 8일 주일 설교입니다.

< 자연스러움과 어색함 >

삼상17:37-40 / 새찬송가 79장 (통일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자연으로 돌아가라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원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사회제도와 문명으로 인해 타락했으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시인 예이츠는 한창 산업혁명중인 런던의 물질주의와 삭막함에 큰 상실감을 느끼며 고향인 섬 ‘이니스프리’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입니다.

2. 우리의 신앙에도 자연스러움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의 질서’란 온 만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적 피조물이며, 그 다음이 인간이고, 그 다음이 만물임을 말합니다. 또 ‘사랑의 질서’란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내 영혼이고, 그 다음 육체이고, 그 다음 만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루소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에 맞춰 사는 이 사회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망친다’고 말하며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이츠는 ‘도시의 삭막함과 물질주의가 인간이 기계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소의 방법이나 예이츠의 방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워지고 이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 또 만물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색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며 다스리는 힘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3. 자연스럽지 못한 어색함에서 모든 종류의 악이 나옵니다

죄는 자연스러운 것을 어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게 되니 사람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내 몸도 어색해지고 내 삶도 어색해집니다. 질병은 내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

해져 생긴 것이며 문제는 내 삶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해져 생기는 것입니다. 또 몸 안에 있어야 하는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질서를 따르고 사랑의 질서를 따르면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면, 아래로는 세상을 다스리고 살며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도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 삶이 회복됩니다. 죽음조차 장차 있을 부활로 회복됩니다(시8:3-9).

특히 회개는 죄를 지은 우리 심령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시32:1-4). 죄는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면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문제해결은 사람이 치료하고 해결하는 것과 달리 아주 완벽하십니다.

4. 자연스러움은 존재의 축복과 행복을 넘어서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인간의 수단인 놋 투구와 갑옷과 칼이 어색하여 벗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물매와 돌 다섯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원칙입니다(삼상17:38-40).

< 적용 & 실천 >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러운가요? 혹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인위적인 것을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